롯데제과, 경찰과 '사전등록제도 활성화' 진행

롯데제과가 경찰과 협업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사진)을 진행한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는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실종을 대비해 지문·사진·보호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제도다. 파스퇴르 우유(900mL) 3종(일반·저지방·유산균) 패키지에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안내 라벨과 QR코드를 삽입한다. 회사 측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공헌 캠페인에 꾸준히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오리온, 풍선껌 '수수께끼 와우' 한정판 출시

오리온이 풍선껌 '수수께끼 와우'(사진)를 한정판으로 선보였다. 먹어보기 전까지 어떤 맛인지 알 수 없는 편(fun) 콘셉트 제품이다. 소비자가 직접 숨겨진 맛의 비밀을 풀어가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노란색 껌 위에 6가지 색의 레인보우 플레이크를 더해 상큼달콤한 맛의 조화와 함께 풍선을 불었을 때 알록달록한 비주얼이 특징이다. 회사 측은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펀 콘셉트의 제품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SKT 하반기 인재 채용…30일까지 지원 가능

SK텔레콤이 하반기 신입 인재 채용을 시작한다. 선발 인원은 두 자리 수 규모로 30일까지 지원 가능하다. SK텔레콤은 'SKT 2.0'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기존 채용 전형을 새롭게 개편했다. 기존 직무별 채용을 ▲서비스 ▲개발 ▲고객 ▲인프라 ▲스텝 등 5개 직군으로 통합해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기존 보유 경력 3년 미만에서 경력 1년 미만으로 제한한다. 또 기존 서류·필기-면접의 채용 순서의 틀을 탈피하고 필기 전형을 우선 시행한다. 자기소개서 작성 부담을 줄이고 필기 전형 참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서류 전형 후 1차 합숙형 면접을 통과한 지원자는 2차 최종 면접을 거쳐 입사가 결정된다.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반월상연골판 파열, 방치 말아야 무릎퇴행성관절염 조기 발병 우려

일상생활 도중 무릎 통증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다. 단순 타박상 또는 가벼운 무릎염좌라면 휴식 및 파스, 소염제 자가 치료를 통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무릎 관절 조직손상이 원인이라면 방치할수록 무릎 통증이 극심해지고 보행장애도 나타난다.

특히 반월상연골판 파열이라면 상태가 신속히 정밀검사 및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월상연골판은 무릎 관절 사이에 위치한 조직으로 체중 부하에 따른 충격 분산역할을 수행한다. 파열되면 무릎 충격이 고스란히 관절에 전달돼 커다란 무릎 통증을 초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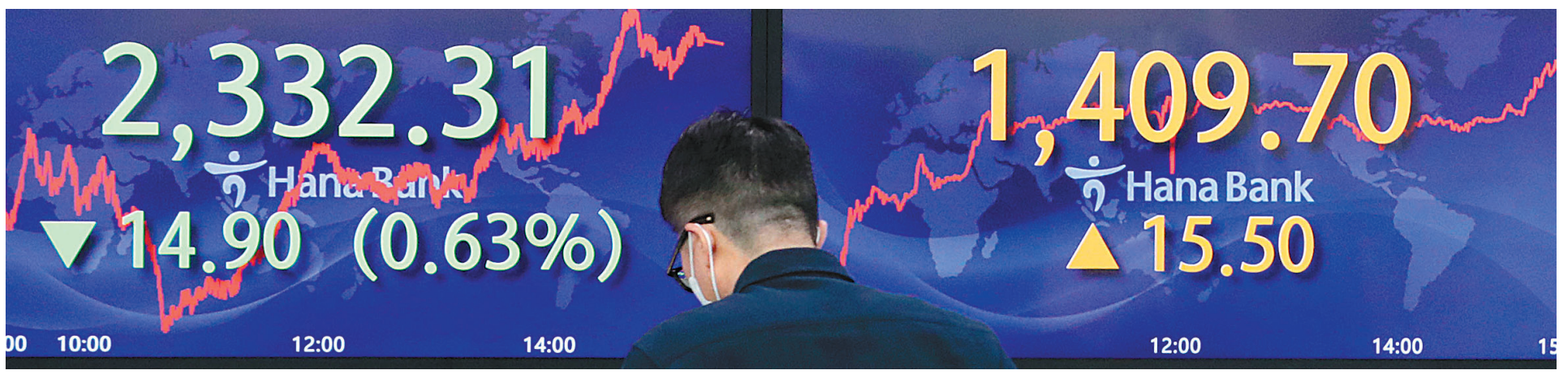
반월상연골판 파열을 단순 염좌나 타박상으로 여겨 찜질, 마사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파열된 상태에서 축구 등의 스포츠 활동을 강행하기도 한다. 반월상연골판 파열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치료 과정이 어렵고 복잡해진다. 찢어진 연골판 일부분을 정리하는 연골판절제술을 고려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반월상연골판이 절제된 만큼 기능적 역할도 감소해 무릎 관절 내구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릎 퇴행성관절염 조기 발병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연골판절제술을 시행하기 전 가능한 자연 연골판을 보존하는 치료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열증상을 조기에 발견해 운동도수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비수술 요법과 체중 감량, 생활습관교정 등을 병행하여 개선해야 한다.

일산 정형외과 든든한병원 **김병각** 원장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반년 만에 美기준금리 3.0%p 올라…금융시장 '빅쇼크'



2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주식전광판에 표시된 코스피 지수와 원·달러 환율. 뉴시스

美 3연속 '자이언트 스텝'…환율 1400원 돌파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이하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22일(한국시간) 6, 7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한번에 0.75%p를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한 가운데,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고 환율은 연고점을 기록했다. 향후 글로벌 증시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美소비자물가, 전년 동월비 8.3%↑
연준 "2%대 달성 때까지 긴축 계속"
환율 상승으로 국내 물가상승 예고
한국은행, 추가 빅스텝 배제 어려워

22일 미국 워싱턴DC 연준 청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AP뉴시스

●미국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원인

미국 연준은 3월 0.25%p의 베이비스텝, 5월 0.5%p의 빅스텝, 6·7·9월에 각각 0.75%p의 자이언트스텝을 밟으며 6개월 여 만에 기준금리를 무려 3.0%p나 빠르게 올렸고, 2008년 1월 이후 1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2.25~2.50%에서 연 3.00~3.25%로 크게 상승했고, 국내 기준금리(연 2.50%)보다 상단 기준으로 0.75%p 높아졌다.

미국 연준이 자이언트스텝을 결정한 데에는 최악으로 치달은 인플레이션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8.3% 상승해 시장 전망치인 8.0%를 상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3%, 전월보다 0.6% 각각 오른 것에 대한 충격이 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대를 달성 때까지 긴축을 멈추지 않겠다"며 "오늘과 같은 큰 폭의 금리인상이 또 가능하다"고 했다.

이러한 파월 의장의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발언에 가장 민감히 반응한 것은 원·달러환율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94.2원)보다 15.5원 오른 1409.7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 것은 장 마감 기준으로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 3월 20일(1412.5원) 이후 13년 6개월 만이다. 역대로 봐도 1400원 돌파는 1997·98년 외환위기, 2008·09년 금융위기 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글로벌 증시도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 뉴욕증시의 경우,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24.45p(1.70%) 내린 3만183.78,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66.00p(1.712%) 하락한 3789.93, 나스닥지수는 204.86p(1.79%) 떨어진 1만1220.19에 장을 마쳤다. 국내 증시 상황도 마찬가지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4.90p(0.63%) 내린 2332.31, 코스닥은 3.48p(0.46%) 하락한 751.41에 마감했다. 이밖에도 홍콩 항셍지수가 장중 2011년 12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하고, 일본 닛케이225지수와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각각 0.58%, 0.27% 떨어지는 등 아시아 증시도 약세를 보였다.

●국내 경제 불확실성 우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악순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미 금리의 역전을 낳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외국인 자본 유출이 원화 가치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 것이 예사롭지 않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무역수지 악화를 불러오고, 시간을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돼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 또 한국은행은 고물가 고착화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게 되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작용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10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폭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미 금리 역전폭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기준금리를 0.25%p씩 올리는 점진적 통화정책을 예고했지만, 미국 연준의 긴축 속도가 당초 전망보다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7월에 이은 추가 빅스텝(기준금리를 한번에 0.5%p 인상)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4% 이상으로 상당 폭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전제조건 변화가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기준금리 인상폭을 결정하겠다"고 추가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도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전 세계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국내뿐 아니라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겠다"며 "단기간 내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극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국내 최초 라디오부터 올레드TV까지…LG, 영국서 K테크 발전사 알린다

〈금성사 'A-501'〉

24일부터 英 V&A박물관서 전시
'럭키크림' 등 LG 대표 제품들 선봬
디스플레이 기술로 K콘텐츠 소개

LG가 영국 런던의 '빅토리아 앤 알버트(V&A) 박물관'에서 K테크 발전사를 알린다. V&A박물관은 24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9개월 간 한국의 산업 발전 역사와 한류 콘텐츠를 조명하는 '한류! 코리안 웨이브' 전시회를 연다. 해외 주요 박물관에서 한국의 역사부터 최신 트렌드까지 한류를 포괄적으로 짚어보는 최초의 전시다.

LG는 LG그룹의 효시인 락희화학공업사(현 LG화학)의 국내 최초 화장품 '럭키크림'과 금성사(현 LG전자)의 국내 최초 라디오 'A-501' 등을 전시한다. A-501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산업적 가치를 인정받아 우리나라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다. 그 외에도 LG는 궁중 한방 화장품 '후', 'LG 프라엘 LED 마스크' 등을 전시하고, 1956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해 제작한 락희화학공업사의 '럭키치약·비누' 광고 '럭키춘향편'도 선보인다.

락희화학공업사 '럭키크림', 락희화학공업사 '럭키춘향편' 광고, 금성사 'A-501' 라디오, LG전자 LED 사이니지, LG전자 올레드TV, LG디스플레이 투명 OLED.(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사진제공 | LG

LG는 '강남 스타일'을 비롯한 K팝 뮤직비디오, '기생충', '오징어 게임'같은 영화 및 드라마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소개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기술도 지원한다. LG전자는 65인치부터 83인치까지 다양한 크기의 올레드TV와 대형 LED 사이니지로 역동적인 한류 콘텐츠를 더 선명하고 몰입감 높은 화질로 선보인다. LG디스플레이는 55인치 투명 OLED로 구현한 가상의 창문을 통해 콘텐츠를 입체적으로 연출해 생동감을 더한다.

LG 관계자는 "이번 전시제품들은 1950~1960년대 근대 산업의 태동기를 거쳐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K테크를 이끌어온 LG의 대표적인 혁신 제품으로 V&A박물관 측이 직접 선정해 전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1852년 설립된 V&A박물관은 연간 400만 명이 찾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미술·디자인 박물관이다. 세계 각국의 도자기·가구·장신구 등 280만 점에 이르는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